

2004 청주직지축제 9월2일 개막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4 청주 직지축제'가 9월 2일부터 4일간 청주예술의전당과 한국공예관 등에서 열린다. 청주시 주관과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소통'을 주제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행사 기간동안 '고려 장터'와 '고려주막'도 열린다.

이 축제의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고려 퍼레이드 : 2~5일. 청주예술의전당~고인쇄박물관 ▲직지 국제서예대전, 좁쌀 책(초소형 책) 전시회, 직지문화상품 특별전 : 2~5일. 고인쇄박물관 및 한국공예관 등 ▲오페라 직지 공연 : 1~2일 오후 8시.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학술회의 : 3~4일 오전 10시. 대회의실 ▲직지동화구연 전국대회 : 5일 오전 10시. 대공연장 ▲직지 e-game 월드컵 : 2~5일 오후 2시. 소공연장 ▲직지 콘서트 : 4일 오후 7시. 특설무대 ▲전국사진촬영대회 : 5일 오전 10시. 행사장 일원 ▲구텐베르크 특별전 : 2~5일. 고인쇄박물관 ▲평생학습동아리 전국경연대회 : 3일 오전 10시. 특설무대 ▲VJ 콘테스트 : 2~5일. 행사장 일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워크숍 : 4~7일. 고인쇄박물관

단체수의계약 폐지방침에 대책 부심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폐지시기와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내수침체로 최악의 경영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정부 움직임을 '명분론'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10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조달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법 개정 협의에 들어갔다. 단체수의계약 관련법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으로 정부측은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대로 조기에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백파 기협중앙회 공동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 및 폐지 논란은 과거 수년간 계속돼 왔다"며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서둘러 제도 폐지에 나서는 데 중소기업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제도 자정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전에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 대안으로 제시된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와 병행실시를 제안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해 정부측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기업간의 공정경쟁.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된 3년 졸업제, 일사일조합(一社一組合) 수혜원칙, 배정비율 준수 의무 등 단체수의계약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공공기관 구매담당 A씨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경쟁체제로 바꾼다면 최저가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가 입찰시 적정가의 80% 수준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업체간 출혈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인쇄 자격검정, 인쇄단체에 위탁 시행"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박충일)는 최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현 인쇄분야 자격증제도가 산업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에 인쇄분야 자격검정을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사업을 위한 정부의 자금 및 정책지원이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국제출판인협회 총회 2008년 서울개최

국제출판인협회 총회가 2008년 서울에서 열린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는 6월2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27회 총회 폐막식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총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볼프 폰 루치우스 베를린총회 조직위원장은 이날 IPA기(旗)를 차기 개최국인 한국의 이정일 출판문화협회장에게 넘겼다.

4년마다 열리는 이 총회는 전세계 출판인들이 모여 출판·인쇄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출판계는 이 행사를 통해 세계 지식산업 종사자들에게 한국출판문화의 발전상을 알리고 해외 저작권판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A는 표현과 언론출판의 자유 확대, 출판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1951년 설립됐으며 현재 65개국과 지역별협회 등 모두 7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7월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 부가세 납부세액을 합산해 주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세제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전에는 시디롬(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에 수록된 것만 면세됐으나 7월1일부터는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이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무형의 전자출판물까지 면세범위가 확대됐다.

올 최저임금 월 64만1840원

올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3.1%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5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284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2천72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천510원, 일급 2만80원에 비해 13.1%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1840원, 내달부터 주 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 59만3560원이 되는 셈이다.

중기 경기전망 더 어두워져

정부와 금융계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잇따라 내놓

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발표한 '2004년 3분기 중소 제조업 경기 전망'을 보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실사지수(BSI)가 94로 2분기의 106과 견줘 12나 떨어졌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를 밝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100 아래면 반대를 뜻한다.

업종별로는 컴퓨터·사무용기기(117), 화합물·화학제품(116), 자동차·트레일러(113), 의료·정밀·광학시계(109), 전기변환장치(108) 등은 100을 넘었지만, 섬유제품(91), 목재·나무(78), 가죽·가방·신발(77), 출판·인쇄(69) 등은 100에 못미쳤다.

교대근무제로 고용 늘리면 지원금

오는 10월부터 교대 근무제 전환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대 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3개조 이상으로 확대, 고용을 늘릴 경우 이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분의 1까지 추가 고용인원 1명당 1분기에 180만원의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또 신규업종 진출을 통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분기에 180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추가 고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2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

새/의/자

문화관광부 장관에 정동채의원

통신사 및 신문사 기자를 거쳐 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17대 의원에 당선된 열린우리당 소속 정동채의원(54세)이 문화관광부 장관에 취임했다.

지난 80년 합동통신 기자시절 언론검열철폐운동을 벌이다 해직된 뒤 81년부터 87년까지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과 정무특보로 활동했다.

국회문광위 위원장에 이미경의원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소속 이미경 의원이 선출됐다. 여성으로 첫 문화관광위원회장에 선임된 이미경 의원(54)은 오랜 여성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파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내 유일한 여성 3선의원이다. 15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나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입장을 표시, 당에서 제명당하기도 했다.